



엄마 집의 변신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엄마 집'의 변신. 결혼 후 집을 떠나온 이들이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갤러리를 꾸미고, 책방을 열었다. '집'이 갖고 있는 본래의 따스함이 스며 있는 공간들이다. 각자의 추억도 함께 소환되는 이런 장소를 찾는 건, 어쩌면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에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일지도 모르겠다. 갤러리 '예술공간 집', 책방 '동명 1974'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추억이 새록새록 ... 오래된 집에 '숨'을 불어넣다

책방 '동명 1974'

1974년 지은 양옥집 책방으로 4남매 자라고 하숙 내주던 공간 개조 큰딸 승경씨, 지난해부터 본격 운영
패종시계 등 소품 보는 즐거움 작가·영화감독 초청 강연·공간 대여 하루 머무는 '북스테이'도 인기

40년 넘는 시간 동안 아빠가 태업을 감던 패종시계, 사남매가 30년 전 쓰던 스탠드, 엄마의 사랑이 담긴 작은 바이올린,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책들.

'동명 1974'는 주인장 임승경씨가 부모님이 살던 양옥집에 문을 연 책방이다. 1974년 지은 양옥집 철문을 밀고 들어 서면 마당과 동백꽃이 피어 있는 작은 화단이 방문객을 맞는다. 현관문을 열고 마루를 지나면 만나는 방이 바로 서점. 추억이 담긴 소품들이 눈길을 끌고 책장과 탁자엔 다양한 책들이 애호가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어느 집 거실에 있을 듯한 쇼파에 앉아 책을 읽다 보면 편안함이 느껴진다. 마당



1974년 지어진 주택을 활용한 '동명 1974'



엄마가 살던 오래된 양옥집을 서점으로 만든 '동명 1974'는 북스테이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을 바라보게 놓인 작은 책상 앞에 앉았다. 한강의 작품 등 작가들의 책이 꽂혀 있고, 필사를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누군가는 예전에 살았던 집을 떠올릴 수도, 학창 시절 추억이 담긴 친구집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 집은 공간 구성이 조금 복잡하다. 공무원이었던 아빠의 월급으로는 사남매를 키우기 어려워 엄마는 하숙을 쳤고, 세를 내주기도 했다. 부엌이었던 공간을 방으로 개조하고, 다락도 만들어 작은 방을 만들었다. 현재 서점으로 쓰는 공간은 예전에 세를 내주었던 곳이다. 바로 옆의 작은 방은 사람들이 편히 쉬며 책을 읽는 공간으로 꾸몄다.

사남매는 결혼을 하며 모두 떠났고, 지난 2019년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엄마마저 요양병원에 들어가면서 집은 2년간 비어 있었다. 큰딸 승경씨는 2022년 집에 드나들며 몇달 동안 집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원래 책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이들 독서 지도도 하고 있고요. 광산구에서 5년간 카페를 한 경험이 있어 북카페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한데 용도변경 등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게 됐고, 좋아하는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책방을 열어 보자 싶었습니다."

2023년 4월 책방을 오픈했지만 1년 정도는 비정기적으로 문을 여는 등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독서모임 '책쓰'를 시작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지금까지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 등 다양한 책을 읽으며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독서모임과 함께 주인장에게 힘을 주는 건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이다.

"서점 투어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석에 있는, 숨겨진 서점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서점에 전국에서 젊은 친구들이 방문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차 환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고요. 이제는 책방을 정말 잘 운영하고 싶어요. 사업성을 따질 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재미있어야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책방 일이 저에게는 참 재미있습니다."

책방은 소설가 김영란,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의 김유성 감독 등을 초대해 강연을 열고 공간 대여도 진행하고 있다. 서점에서 하루를 머무는 북스테이도 인기가 많다. 참여자들은 가정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끼고 서점 운영이 로망이었다며 즐거워 한다. 아직 '동명 1974'가 갖추고 있는 책의 종류는 그리 많지 않다. 독서 모임 회원 등 책을 좋아하는 이들이 추천하는 책들을 가져다 놓는데 앞으로는 컬렉션도 늘릴 예정이다. 무엇보다 양옥집 거실과 다른 방으로 책방을 확장하는 일을 계획중이다. 승경씨는 세련된 공간이 넘쳐나는 동명동에서 누추함을 격정했지만, '동명 1974'는 그 소박함이 큰 자산이다. 대문이 닫혀져 있다면 친구집에 방문하듯 초인종을 누르면 된다. 친절한 주인이 문을 열어주며 따뜻한 커피 한잔을 권할 터다. 커피와 구입한 책을 받아들이고 마당 작은 테이블에 앉아 책을 읽는다면 더없이 행복하다.

금요일-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다른 요일은 무인으로 운영.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

예술공간 집

큐레이터 문희영 관장 학창시절 보낸 집 2017년 갤러리로 리모델링해 개관 초록색 대문·작은 화단 등 풍경 '애트' 한옥이 갖는 매력에 작품 어우러져 기획·초대전 '민고 보는 전시' 자리매김 2023년 '민간예술여행 플랫폼' 선정

'예술작품이 돋보이는 갤러리.' 박치호 작가 기획 초대전 '붉은 몸, 붉은 바다' 전(27일까지)이 열리고 있는 예술공간 '집'을 찾았을 때 다시 한번 느꼈다. '집'에 등지를 톱 박 작가의 그림들은 몇년 전 전남도립미술관이라는 대형 공간에서 만났던 작품의 느낌과는 전혀 달랐다. 2년 전 리모델링 과정을 거치면서 갤러리는 '다 작품 진화적'이 됐다.

동명동 전남여고 맞은편 골목길에 숨어 있는 예술공간 '집'은 지난 2017년 개관 초부터 화제가 됐다. 문희영(50) 대표는 학창시절 살았던 주택을 개조해 공간을 만들고 '집'이라 이름 지었다. 전성취 작가 등이 참여한 개관전 타이틀 '다시 호흡하는 시간'처럼 '엄마집'은 '갤러리'로 다시 숨 쉬기 시작했다.

'집'은 지난 2023년 문화예술체육관광부의 '민간예술여행 플랫폼' 사업에 선정되면서 변화를 시도했다. 사무공간으로 쓰던 공간까지 전시장으로 확장했고 프레임이 제거한 통창을 배치, 시야를 확보했다. 또 새 옷을 입은 초록색 대문, 그림 한 점이 걸려 있는 야외 휴식 공간, 작은 화단의 비파, 무화과 나무 등까지 멋진 풍경이 만들어졌다.

1967년 지어진 5칸 규모의 일(-)자형 한옥은 문대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살았던 곳이다. 그림을 좋아했던 소녀 문희영은 이곳에서 화가의 꿈을 키웠고, 미술대학에 진학해 서양화를 전공한 후 큐레이터로 활동했다.

"2016년 즈음 제 공간에서 정말 전시를 꾸려보고 싶었어요. 그 때 친구의 한옥 카페에 자주 갔는데 거기서 머릿속으로 공간에 그림을 걸어보며 혼자 꿈을 꾸곤했죠. 우리집 한옥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볼까 구상하면서요. 당시 저희는 앞집으로 이사가고 한옥을 세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게 됐어요. 꿈이 현실이 되긴 했지만 갤러리로



엄마의 오래된 한옥을 갤러리로 만든 '예술공간 집'에서는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전시가 열린다.

용도를 바꾸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데 모르는 것 투성이라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낡은 한옥은 근사한 갤러리로 변신했다. 천정의 서까래, 주춧돌의 흔적은 그대로 남겼고 창고는 커피 만드는 곳으로 꾸몄다. 리모델링 과정에서는 작품이 잘 돋보이도록 할 것, 100호 작품 10개는 들어가도록 할 것, 시야를 확보할 것 등을 원칙으로 정했다.

매년 12~14차례, 모두 96회의 전시를 진행하며 8년 세월이 지났고, '집'에서 열리는 기획·초대전은 믿고 보는 전시가 됐다. 전시를 여는 작가들의 반응도 좋다. 한옥의 매력을 잘 아는 작가들은 작품이 공간과 잘 어우러지고, 어떤 장르의 작품도 전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집'은 2023년 광주비엔날레 본전시장으로 사용되면서 이름을 알렸다. 죽음을 앞둔 인도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나임 모하이멘의 영상 작품은 '집'이라는 공간과 잘 어울렸다. 이후 전시장을 꾸준히 찾는 일반 관람객들이 많아졌다.

"버터내기. 지역에서 상업갤러리를 운영하는 이들이 마음에 새기는 말이다. 역시 어려운 과정을 거쳤든 문대표는 함께하는 작가들과 좋은 전시를 기획하고 아트페어에 꾸준히 참가하면서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나갔고 5년이 지나며

가능성을 봤다.

"힘들어도 버티니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 팔리더라도 의미있는 전시는 꼭 하자라는 생각이었고, 점차 그 작가들의 작품이 주인을 만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요즘 좋은 상업갤러리의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지역 미술이 공공에 의존하는 데 그 다음은 없거든요. 특히 45세 이상 작가들이 자리를 잡아가도록 힘을 보태고 싶어요. 지역에서도 지속가능한 미술시장을 만드는 데 전력투구해 지역형 갤러리의 선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문 대표는 앞으로 대관을 줄이고 색깔이 맞는 작가들 위주로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또 이번 박치호 작가 전시에서 처음으로 외부 평론가에게 작품 해설을 맡기는 등 의견을 넓히고 있다.

"엄마의 애뜻함이 담긴 엄마의 집을 갤러리로 꾸며 다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더 없이 좋지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꿈, 미대를 가겠다는 꿈을 이룬 곳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작가들과 함께 이곳에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예술공간 집'은 1967년 지어진 한옥이다.